

필자가 근무하는 신문사에서는 계절따라 이상한 풍속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시간당 수십만부씩 찍어내는 신문 운전기에다 대고 고사를 지내는 일이다. 컴퓨터로 무장한 초현대식 장비 앞에는 삶은 돼지머리와 시루떡을 쌓아놓고 절을 해댄다.

사고를 예방해 주고 사업을 풍성하게

하는 얘기가 “쓸 데 없는 손장난하지 말고 글이나 읽으라”하여 기술익히는 일을 천하게 생각해 왔다. 이러한 교육은 진취적 성격을 기르지 못하고 소극적인 사람을 만들어 버렸다.

첨단장비 앞에서 고사지내

요즘도 부모님들은 등교하는 아들 딸을 보고 “차 조심해라. 물 조심해라”고 당부한다. 차 조심하라는 것은 위험한 기계니까 가까이 하지 말라는 뜻이 포함돼 있다. 팔순이 넘으신 나의 어머니도 내가 운전대를 잡으면 몹시 불안해 하셨다.

기계에 대한 공포가 남아있는 것이다. 우리의 어린이들은 이런 환경 아래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기계에 대한 공포가 실제로 마음 한구석에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내가 10여년 전 운전을 배울 때를 생각해 보면 이 기계에 대한 공포가 생생하게 살아난다. 처음 운전대에 앉았을 때는 우선 손부터 떨리기 시작했다. 행여나 무슨 단추를 잘못 작동시켜 큰 일이나 나지 않을까하는 불안감에 가득 찼다. 등골에 땀이 흥건히 배었다. 혈압이 오르고 숨까지 가빠졌다. 입술이 바싹바싹 말랐다. 이놈이 ‘달리는 흥기’라는 생각을 하니 더욱 공포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너무 겁내시지 말고 왼 발로 클러치를 슬그머니 놓으면서 오른 발로 액셀러레이터를 천천히 밟아보셔요.”

상냥한 여자교관이 내 모습이 딱한지 차근차근 설명하며 공포감을 덜어 주었다. 이 때 앞차에서는 젊은 아가씨가 보기 좋게 핸들을 꺾으며 즐거운 표정으로 연습을 하고 있다.

“저런 아가씨도 다 잘 하는데 나는 사나이로 태어나서...”

나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며, 죽기 아

기계가 무서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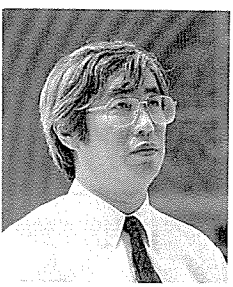
컴퓨터로 무장한 초현대식 장비 앞에서 돼지머리랑 시루떡을 쌓아놓고 절을 하며 고사를 지낸다. 기계한테 잘 봐 달라고 비는 것이다. 기계를 두려워 하는 일은 마침내 기계에 익숙한 사람들을 존경하게 만들었다. 과학하는 정신, 기술을 숭상하는 정신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

해 달라는 기구(祈求)의 일종이다.

인간이 기계에게 잘 봐 달라고 비는 일이다. 기계에 대한 인간의 두려움을 말한다고 할 수도 있다. 문명이 발달하면 사람이 기계나 기술의 노예가 된다는 우려는 몇 백년 전부터 있어 온 이론이다.

특히 기계가 고약한 물건이라는 생각은 우리 민족에게 뿌리깊게 박혀있다. 기계를 만지는 사람부터 우선 천하게 여겨왔다. 기술을 가진 사람도 존경은 커녕 멸시해 온 것이 우리 봉건시대의 사고였다.

우리의 조상들은 어린 아들 딸에게 늘



李祥雨 (일간스포츠 부사장)

니면 살기라는 비장한 각오로 핸들을 잡았다.

기계에 대한 이러한 두려움은 내가 컴퓨터를 처음 만졌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나는 다음에 컴퓨터시스템의 책임자가 되기도 했다.

나는 마침내 한달 만에 운전 면허증을 손에 쥐게 되고 그 두렵던 자동차 기계들과 친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 기쁜 꿈도 잠시였다. 실제로 자동차를 몰고 거리에 나왔을 때 이전 한 발자국도 떼 놓을 수 없는 돌쟁이 어린애와 같았다. 거리를 썩썩 달리는 다른 흥기들 때문에 갈 수가 없었다. 입이 바짝 마르고 등골에 다시 땀이 났다. 어물어물 한다고 뒤의 택시들이 클랙슨을 울리며 욕설을 퍼부었다. 그 지경이 되자 시동도 금방 꺼져버렸다. 다급하게 서둘다보니 시동도 더 걸리지 않았다. 당황해서 어쩔줄을 모르게 되었다.

기계에 대한 인간의 두려움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을 차려야지’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리며 침착을 되찾으려고 애를 썼다. 어떻게 어떻게 해서 겨우 시동이 걸리고 차량의 물결 속에서 헤엄쳐 나와 목적지까지 갔다. 내가 목적지에 닿았을 때는 초주검이 되어 있었다.

만날 사람을 만나 볼 일을 보았지만 일이 잘 되지가 않았다. 그냥 안절부절이었다. 자동차를 다시 운전해서 출발했던 곳까지 갈 생각을 하니 난감하기만 했다. 그야말로 큰 괴물을 문 밖에 매어놓은 기분이었다. 나는 완전히 자동차라는 괴물의 노예가 돼버린 기분이었다.

이러한 자동차와 나의 관계는 상당히 오래 계속되었다. 출근시간에 쫓기며 아침밥을 먹다가도 운전해 갈 생각을 하면 밥맛이 다 없었다.

다시 새겨보는 과학정신

“저 놈의 괴물을 누구 쥐버리고 편하게 버스나 타고 다닐까?” 하는 생각을 몇 번이나 했다. 그러나 내 스스로 나한테 지고 싶지 않았다. 처음 내가 하겠다고 결심해 놓고는 그 결심에 대한 약속을 깰 수가 없었다. 이렇게 자동차와 싸우며 지내는 동안 차와 가까워졌다. 이제는 자동차가 나의 노예가 되고 말았다.

내가 자동차 운전을 하게 된 경위를 이렇게 장황하게 늘어놓은 것은, 우리가 기계에 대한 공포를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었나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함이었다. 자동차를 새로 산 사람이나, 직업적인 택시 기사들 중 정기적으로 고사를 지내는 사람들을 우리는 종종 본다.

난폭한 짓 하지 말고 고분고분 주인 말 잘 듣고 돈벌이 잘 되게 해 달라는 기구일 것이다. 새 아파트에 이사간 내 친구가 그 아파트의 난방 보일러며 가스 배전관 등 걸보기에 기계류로 보이는 시설물들마다 찾아 다니며 돼지머리를 놓고 고사를 지내는 풍경을 보았다. 나중에는 엘리베이터 앞에 돼지머리를 가져다 놓고 절을 했다.

기계가 두려운 것이다. 더구나 엘리베이터 같은 기계는 달리는 흥기인 ‘교통기관’에 속하기 때문에 더욱 더 무서운 것이다. 이 흥기들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심정은 앞에서도 말했지만 우리들 의식 속에 잠재해 있다.

기계와 친하지 못한 민족은 문명을

두려워 하기 마련이고, 문명이 두려운 민족은 잘 살기 어렵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기계를 무서워하는 그 잠재의식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 나는 생각해 본다. 기계를 두려워하게 되면 그만큼 조심하게 된다.

우리의 안방, 부엌, 그리고 문 밖만 나서면 우리는 항상 기계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다. 안방에는 컴퓨터, 에어컨, 텔레비전, VTR 같은 고압전류가 흐르는 위험천만한 기계들이 있다. 부엌에도 냉장고, 전자오븐, 가스레인지 같은 위험한 기계가 많다.

문 앞을 나서면 목숨을 내맡기는 아파트의 엘리베이터가 있다. 길에 나서면 달리는 흥기가 앞 뒤로 덩벼든다. 집안에서 전기사고를 막고,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 사고를 막고, 거리에서 교통사고를 줄이는 일은 예방정신에 있다. 기계를 업신여겨 함부로 다루는 정신은 사고를 부르는 원인이 된다. 기계를 두려워하는 일, 그것이 꼭 소극적이고 비진취적인 정신만은 아닌 것 같다.

기계를 두려워하는 일은 마침내 기계에 익숙한 사람들을 존경하게 만들었다. 과학하는 정신, 기술을 숭상하는 정신은 그것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데서 우러나온다는 역설을 생각해 본다. ⑤7

